

장춘, 길림 전국 운전면허증 전자화 시범도시에 입선

13일, 공안부는 소식공개회를 소집하고 공안부에서 연구, 출범한 공안교통관리 편민리업 개혁과 관련된 새로운 조치 상황을 통보했다.

우리 나라 운전자 5억 3,000만명

최근년간, 우리 나라의 동력엔진차량과 운전자는 고속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5월말까지 전국 동력엔진차량 보유량은 4억 4,000만대, 그중 자동차가 3억 4,000만대에 달하며 운전자는 5억 3,000만명에 달한다. 10년간 자동차의 년평균 번호판 발급량은 2,000만대를 넘었고 면허증 발급량은 2,800만명을 넘어 총량과 증가량이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신청 시험과목에 변화

올해 7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재신청 과목을 최적화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3년 기한을 넘어도 새로 교체하지 않아 말소되는 경우 과목 1, 2, 3 전 과목 시험에 합격해야 운전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개혁후에는 과목 1과 과목 3(도로 운전기능) 시험에만 참가하고 과목 2와 과목 3(안전문명상식) 시험에 참

가지 않도록 조정한다.

번호판, 운전면허증 교체 택배배송 가능

올해 7월 1일부터 번호판 교체 등 교통관리업무를 처리할 때 자주적으로 택배배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배달원은 직접 당사자의 집을 방문하여 신청자료를 수취한다. 공안교통관리부문은 심사, 확인후 자동차 번호판을 신청인에게 택배로 배송해 대중들이 교통관리업무를 처리하는 데 더욱 큰 편리를 제공한다.

공안부 교통관리국 부국장 제취충은 “추산에 따르면 이 조치의 실시로 매년 연인수로 200만명 넘는 대중이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60개 도시 자동차 운전면허증 전자화 시범

올해 7월 1일부터 전국 60개 도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전자화를 시범적으로 추진, 자동차 소유자 및 관련 업종과 관리부문에 운전면허증 온라인 ‘증명’, ‘코드 보이기’ 봉사를 제공하는데 길림성에서는 장춘시와 길림시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60개 시범도시에서 발급하는 전자운전면허증은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 길림일보

‘공유자전거 아동의자’ 추가 설치 위험해



공유자전거의 앞채잡이에 나무판을 추가하면 어른이 아이를 앉히고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목적지에 도착하면 나무판을 떼어내 접어서 보관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런 간단하고 실용적인 공유자전거 아동의자가 많은 학부모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공유자전거에 장착하는 어린이의자의 가격은 수십원에서 100원까지 다양한데 모두 편협한 판매량을 가지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부모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어린이에게 우호적’으로 보이는 ‘의자’는 사실 ‘가름대’ 란쪽에 띠를 걸어 발디딤줄을 만든 것으로서 손잡이, 안전벨트, 보강장치도 없어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공유자전거 아동의자 안전사고 속출

가게 고객센터에 따르면 최소 2세 어린이가 공유자전거 아동의자에 앉을 수 있는데 설치 시 나무판이 충분히 단단하게 끼이면 안전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시트’의 안전성은 고객센터원이 말한 것처럼 간단하지 않은바 부적절한 사용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자전거는 제멋대로 추가 조립해서는 안된다.

어린이의자 전문가: 사고 시 부모가 상응한 책임을 져야

일찍 2017년 교통운수부 등 10개 부서는 공동으로 <인터넷 임대 자전거 발전을 격려하고 규범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사용자가 문명하게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타며 규범적으로 주차하고 규정을 위반하고 사람을 태우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견은 또 함부로 어린이의자 등 장비를 추가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기자가 여러 공유자전거 대여서비스계약을 조회한 결과 플랫폼측에서 사용자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동안 개인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사용자가 자전거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부품을 임의로 조립, 개조, 분해하거나 스스로 교체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인신 또는 재산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중국인민대학 공공관리학원 교수 왕충호는 ‘공유자전거 아동의자’ 디자인은 아동에게 우호적이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비우호적이고 비과학적인 바 일정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모가 요행을 바라 이런 의자를 사용하면 경우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는 제1책임자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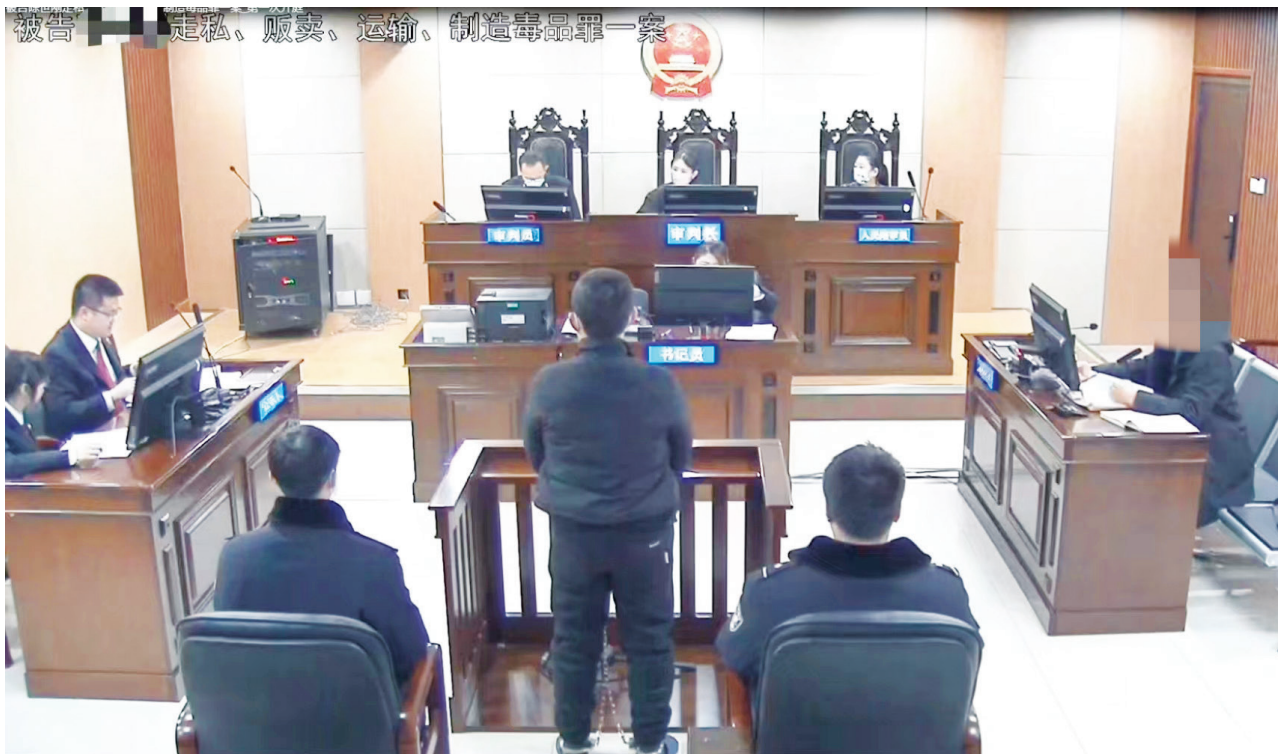
/ 인민넷 - 조문판

연길법원, 첫 국가통제 정신성 약품 밀매사건 종결

최근, 연길시 첫 국가통제 정신성 약품 밀매사건이 연길시인민법원에서 종결되었다.

2020년부터 2023년 4월 사이, 피고인 김모는 모 의약품이 국가에서 통제하는 정신성 약품임을 변연히 알면서도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약을 처방하는 방식으로 유포, 주모, 정모 등 여러 사람에게 수차례 약품을 판매했다. 판매 금액 17만 4,388원중 불법소득이 4만 7,000여원에 달했다. 범행후 공안기관은 피고인 김모의 거주지에서 국가통제 정신성 약품 278알을 수색해냈다.

재판에서 피고인 김모는 기소장에 밝힌 정신성 약품 밀매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법정에서 죄행을 인정했다. 법원은 재판에서 피고인 김모가 정신성 약품에 대한 국가의 관리제도를 위반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정신성 약품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여러 차례 해당 약품을 판매하였는데 정상이 엄중하고 주관적 악의가 크며 사회적 위해성이 크기에 마약밀매죄로 김모를 유기징역 3년 3개월에 처하고 벌금 1만원을 안기며 불법소득을 추징해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전통적인 마약에는 아편, 헤로인, 필로폰 등이 있지만 사실 우리 나라 형법에서 규정한 의미의 마약에는 국가적으로 통제하고 사람들이 중독될 수 있는 마취약품이나 정신성 약품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통제 ‘약품’은 의학적 가치가 있지만 인체에 중독성을 가져다주기에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담당법원은 최근년간 국가에서 마약범죄를 효과적으로 타격함에 따라 전통적인 마약범죄가 위축된 반면 의료 용도에 사용되는 마취약품들이 범죄자들에 의해 중독물질로 대체 람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중들은 타인이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도

록 자신의 진료증명과 신분증을 함부로 빌려주지 말고 중독성이 강한, 합법적인 허가가 없는 약품을 사사로이 거래하지 말며 반드시 의사의 과학적인 지도하에 과학적이고 안전한지이며 합리적으로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리전기자 / 사진 연길시인민법원

연길시, 비물과 오수 분류개조사업 질서 있게 추진

최근, 연길시 옛 도시구역 비물과 오수 분류개조사업 시공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다.

시공현장에서는 연길시주택건설국 사업일군이 여러 시공측을 지도하여 기계와 인력을 보강하면서 다지점 작업, 도로 구간 분할, 반쪽 시공을 통해 전체적인 시공 진도를 다그치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연길시 옛 도시구역 비물과 오수 분류개조사업의 건설 규모는 21개의 도시 구간선도로를 포함하는데 도합 89키로메터에 달하고 비물 뿜프장 2개를 새로 건설하며 스마트 배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작업을 진행한다. 현재 전체 공사는 이미 장백산로와 리화로 등 7개 구간도로의 3,000연미(延米) 포위



망을 완성하고 광진거리와 우의로의 비물 합수공사 495메터, 영춘거리와 광진거리의 비물배수관 854메터, 연길시의 도관과 우의로의 하수관도

1,045메터를 설치했다. 연길시주택건설국 도시건설과 관련 책임자는 “이번 비물과 오수 분류개조사업을 통해 독립적인 비물관

망과 오수관망을 건설하고 배수체계를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며 비물과 오수를 각각 수집하고 처리하여 배수 효율을 높이고 환경보호 관련 요구에 도달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지역의 침수문제를 크게 완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비물과 오수의 분류는 비록 시민들의 출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도시의 교통조건을 개선하고 도시의 홍수방지와 배수 압력을 낮추며 홍수와 침수 재해의 손실을 경감하는 데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 시공 기간에 관련 구간은 교통통제 조치를 실시하게 되며 시공단위는 도로분단과 반쪽 시공을 채용한다.

/ 오건기자 / 사진 연길시당위 선전부



지붕 락하물로 인한 차량 손실 누가 배상해야 하는가?

여름철 소나기 날씨 때는 광고판이나 벽돌, 기와가 바람에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 최근 도문시인민법원은 진모네 집 지붕 양철판이 강풍에 떨어져 이웃 주민 장모네 집 마당에 세워둔 자동차를 망가뜨렸지만 진모가 배상을 거부한 사건을 심리했다.

2023년 6월, 진모네 집 지붕 양철판이 강풍에 떨어져 장모의 자동차가 훼손되었다. 진모는 장모의 차량 앞 덮개와 범퍼가 긁힌 흔적, 차체 왼쪽의 긁힌 흔적, 오른쪽 앞문의 승강유리, 자동차 흠발이를 수리해주고 수리 비용을 지불하였다. 당시 진모가 자동차 4S점에 문의하였

는데 차량 헤드라이트 수리 비용은 2,500원 정도이고 만약 개인 정비소에서 수리하면 1,200원 정도였다. 하여 진모는 1,000원을 배상하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장모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였지만 장모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랑측은 좌측 전조등 수리에 대해 줄곧 합의를 보지 못했고 장모는 자체로 4S점에서 차량을 수리했다.

장모가 수리 비용 2,570원의 결산서를 가지고 진모에게 배상을 요구하자 진모는 배상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장모와 진모는 수차 협상했지만 랑측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장모는 어쩔 수 없이 도문시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진모는 집주인으로서 가옥에 대한 보수, 관리 책임이 있다. 현장 사진을 보면 지붕 양철판은 지지력이 불충분한 안전우환이 있으며 비바람에 쉽게 떨어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진모는 평소 지붕을 유지 보수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숨겨진 위험이 있는 부분을 제때에 보강하지 않았기에 장모의 손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진모는 장모가 교체한 차량 부품을 본인한테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모는 교체 부품을 보관하지 않았고 쌍방은 이에 대해 합의한 적도 없으며

진모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에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는 이유로 될 수 없다. 따라서 진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제시: 최근년간 공공 락하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건축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 및 정비를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잠재적인 안전우환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여 타인의 권익을 해치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 방지해야 한다.

/ 연변라지오 TV 넷

유아 전기모기향 액체 오용 중독사고 빈발! 특별한 해독제 없어

올해 5월부터 많은 병원에서 어린이가 실수로 전기모기향 액체를 섭취하여 중독된 사례를 공개적으로 보도했는데 그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기모기향 액체의 독성 성분은 주로 피레스로이드이며 현재 립상적으로는 특별한 해독제가 없다.

6월 5일, 절강대학의학원부속제2병원에서는 1세 어린이가 실수로 전기모기향 액체를 복용하여 중독된 사례를 보고했는데 응급의사가 일련의 긴급구조를 진행하고 약물경련 통

제 및 뇌부종 완화와 같은 치료 방안을 채택했으나 결국 어린이는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해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다.

6월 10일, 복단대학교부속아동병원 하문병원 응급과 주임 루경은 기자에게 얼마전에 병원에서 모기향 액체를 잘못 복용하여 중독된 두명의 어린이를 치료했다고 밝혔다. “피레스로이드는 모기와 파리를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살충제로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독성이 낮지만 실

수로 섭취하면 그 유해성이 크게 증가한다. 실수로 복용한 후 어린이는 피부가 붉어지는 등 반응을 보이며 중독된 사람은 호흡곤란, 기침, 어지럼증, 두통, 현기증, 혼수상태,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통제하기 어려운 경련이 나타날 수 있다. 피레스로이드 모기향 액체 중독에 대한 특별한 해독제는 아직 없다.”

영유아, 임신부 및 만성 호흡기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모기장, 방충

망을 사용하고 모기를 쳐서 잡는 전통적인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전기모기향 액체는 반드시 어린이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곳에 보관하여 사용해야 한다. 전기모기향 액체를 잘못 복용하여 중독된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나머지 제품과 외부 포장물을 함께 의료진에 전달하여 독극물의 조성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인민넷 - 조문판